

# 일각(一刻)도 방일(放逸)하지 말라

##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順水使船猶自可(순수사선유자가)  
逆風把住世間橋(역풍파타세간교)  
雖然好箇擔板漢(수연호개담판한)  
到頭未免落便宜(도두미면낙편의)  
什人恁來(십마인입마래)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는 오히려 쉬움이나 바람을 거슬러 키(교)를 잡음은 세간에 드물이라. 비록 이 좋은 담판한(擔板漢)이나 마침내 편의(便宜)에 떨어짐을 면치 못함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읊었고?

급일은 동안거 결제일이라.  
이 삼동구순(三冬九旬) 결제 동안 모여서 안거를 시작함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성주과공(成住壞空)의 자연의 이치처럼 인간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이 이르러서야 세월의 흐름만 한탄하게 될 것이니, 대중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의 대오전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안거제도가 제대로 이어오고 있는 곳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얼마나 수행하기 좋은 곳인지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은혜와 시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일각(一刻)도 방일(放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몸은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므로, 이 몸은 참다운 나

가 아니다. 참다운 나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까닭에 중생들은 나고 날 적마다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인가?” 이 화두를 일상생활 가운데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처일체사(一切處一切時)에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다. (종략)

그렇게 정성껏 잡도리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두가 익어져서 밤낮으로 흐르고 흐르다가 문득 참의심이 발동이 걸리게 되는데, 그때는 보는 것도 있어버리고 듣는 것도 있어버리고, 앉아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며칠이 지나가는지 몇 달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되니, 이것이 일념삼매인 것이다.

이처럼 일념삼매가 시냇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지속될 때, 홀연히 보는 참나에 듣는 참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됨이다. 그리하면 어떠한 법문에도 석화전광(石火電光)으로 바른 답이 흥금(胸襟)에서 흘러나와 여탈자재(與奪自在), 살활월탈(殺活縱奪)의 수완을 갖추고 억집세월(億劫歲月)이 지나도록 진리의 낙을 수용하며 불조(佛祖)의 스승이 되고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 천하를 횡행(橫行)하는 대장부의 활개를 치게 됨이다.

덕산(德山) 스님은 중국 북방지역 사찰

에 거주하면서 일생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 주(註)와 소(疏)로 일관하여 <금강경>에 달통한 스님이였다.

하루는 덕산 스님이 “남방 선지식들로부터 들려오는 말들이,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이라, 곧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룸이라 하니, 이러한 말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남방에 가서 모든 남방 선지식들을 일봉(一棒)으로 때려서 방어가 되게끔 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북방을 출발하여 남방으로 향하였다.

여러 달을 걷고 걸어서 남방의 용담사(龍潭寺) 부근에 이르니, 점심때가 되어 요기를 하려고 사방을 살피던 중 노변(路邊)에 뽕을 구워 파는 노보살이 있기에 다가 가서,

“점심 요기를 좀 합시다.”하니, 그 뽕 굽는 노보살이 물었다. “스님 바람 속에 무엇이 그리 가득 들어 있소?”  
“<금강경> 소초(疎抄)입니다.”  
그러니 노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금강경>의 한 대문(大文)을 물어서 답을 하시면 점심을 그냥 대접할 것이고, 만약 바른 답을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하니, 덕산 스님이 자신만만하게 물으라고 하였다.

노보살이 <금강경> 한 대문을 들어 묻기를,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심(過去心)도 얻지 못하고, 현재심(現在心)도 얻지 못



### 덕산선사 알기 위해

#### 화두 성성히 챙겨

#### 정진에 정진 거듭하라

하고, 미래심(未來心)도 얻지 못한다” 하니, 스님은 과거심에다 점을 치시렵니까 [點心], 현재심에다 점을 치시렵니까, 미래심에다 점을 치시렵니까? 하니, 그 물음에 덕산 스님이 방어가 되어 답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이에 노보살이 말하기를, “약속과 같이 바른 답을 못했으니 다른 데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10리쯤 올라가시면 용담사라는 큰 절이 있으니 용담선사(龍潭禪師)께 가서 불법을 물으십시오.” 하였다.

그러면 이 보살은 어떤 보살이나? 큰 용

기와 신심으로 남방 마구니들을 한 방망이 때려서 방어로 만들겠다는 북방 덕산 스님의 그 용기와 큰 그릇됨(器)을 아시고 문수보살이 뽕 굽는 보살로 나타나서 접인(接引)한 것이다.

요기도 못하고 노보살에게 방망이를 맞고는 골장 용담사를 찾아가 용담선사 방문 앞에 이르러 말하기를,

“용담이라 해서 찾아왔더니, 못[潭]도 보이지 않고 용(龍)도 나타나지 않는구나!”하니,

용담선사께서 그 말을 듣고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그대가 천히 바로 용담(龍潭)에 이르렀네.”

하고 방으로 맞으셨다. 밤이 늦도록 대담을 나누다가 덕산 스님이 객심에 가기 위해 방을 나오니, 밖이 칠흑같이 캄캄하여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으므로 다시 방문을 열고, “사방이 칠흑 같습니다. 불을 좀 주십시오.”

함께 용담선사께서 용심지에 불을 붙여 주니, 덕산 스님이 그것을 받는 순간 용담선사께서 입으로 불어 불을 꺼버리셨다. 불을 끄는 이 참나에 덕산 스님이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이후로는 천하 도인의 언설(言說)을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거기서 크게 진리의 눈이 열린 것이다.

뒷날 아침에 용담선사께서 대중방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중 가운데 이빨은 칼날과 같고 입은 피를 담는 항아리와 같은 이가 있으나, 그가 몽둥이로 때리면 머리를 돌리지 못하느니라. 이후에 고봉정상(孤峰頂上)에서 나의 가풍의 도를 세우 가리니, 시회대중(時會大眾)은 조심하고 조심하라!”

하였다. 그런 후에 덕산 스님이 법당 앞 뜰에서 <금강경> 소초에다 불을 덩기면서 말하기를,

“모든 현현(玄玄)한 운변으로써 진리의 법을 설한다 해도 한 터럭을 허공중에 날리는 것과 같음이고, 모든 세상의 요긴한 기틀을 다하더라도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에 던지는 것과 같음이라.”

하고 <금강경> 소초를 불살라 버리고 용담 선사께 예배하고 떠났다.

### 시회대중은 덕산 선사를 알겠는가?

덕산선사를 알기 위해서는 각자의 화두를 성성(惺惺)히 챙겨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와야 천불만조사(千佛萬祖師)와 더불어 동참하리니 모든 대중은 정진에 정진을 거듭할지이다.

### 필경에 덕산선사를 알겠느냐?

萬 峯頭坐(만인봉두좌)하여 呵佛罵祖(하불매조)나 腳下數三尺(각하수삼척 회아마)

만 길이나 되는 높은 산봉우리에 앉아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음이나 다리아래 두 자, 석 자가 땀을 아느냐?

## “견성 깨달아 중생제도 나서자”

###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若人透得向上關(약인투득향상관)  
始覺山河大地寬(시각산하대지관)  
不落人間分別界(불낙인간분별계)  
何拘綠水與青山(하구록수여청산)

만약 어떤 사람이 향상관을 뚫는다면 산하대지에 걸림 없음을 알게 되리라. 인간 세상의 분별이 떨어지지 않나니 어찌 푸른 산 깊은 물에 구애됨이 있겠나?

옛날 중국에 남양 스님이 계셨습니다. 남양 스님은 분양스님의 제자인데 자명 등 여러 도반과 함께 분양 스님 회상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무척 추운지방이었는데 분양스님께서 남양 스님을 단련하기 위해서 찬물을 뿌리고 재를 뿌리면서 나가라고 해도 남양 스님은 나가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여 마침내 도를 깨달아 임제종선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장수 스님이 남양 스님께 여쭙기를 “허공과 같이 깨끗한 법계라 하는데 어찌 산하대지와 차별이 복잡하게 벌어져 시끄럽게 되었습니까?” 하고 의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정본연(淸淨本然)커니

운하홍생산하대지(云何忽生山河大地) 냇고?”

“청정본연커니 어찌서 산하대지가 생겨났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양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정본연커니 운하홍생(云何忽生) 산하대지(山河大地)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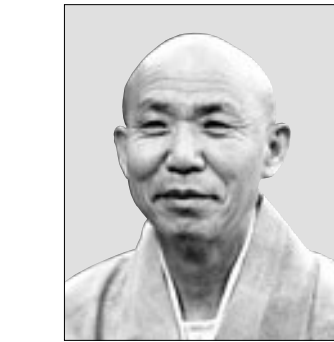
“청정본연한데 어찌서 산하대지가 생겨났다고 하는가?”하고 되물었습니다.

거기에 천동각(天童覺)스님이 송하기를 “견유불유(見有不見)요 번수복수(翻手覆手)로다” “있다고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한다. 손바닥을 뒤집기도 하고 옆기도 한다”는 말합니다. (종략)

處處綠楊堪繫馬(처처록양감계마)  
家家門外通長安(가가문의통장안)

곳곳에 푸른 버들이니, 말을 매어두기 알맞고, 집집마다 문 밖의 길은 서울로 통해 있도다.

거사로는 인도 유마거사, 중국 방거사, 우리나라 부설거사가 유명한 도인거사입니다. 하루는 방거사가 석두 스님을 찾아 가서 “만법(萬法)과 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



면 도(道)란, 진리(真理)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 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방거사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자 방거사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종략)

우리 총림의 대중들께서도 삼동결제 동안 애써 정진하여 견성(自性)을 깨달아 확철대오(徹然大悟)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도록 합시다.

無常忽到教誰替(무상홀도교수체)  
有價元來自還(유상원래유자환)  
若要經聞老案(약야불경명로안)  
直須參透祖師關(직수참투조사관)

죽음이 갑자기 닥치면 누구를 시켜 대신 하라. 빛이 있으면 원래 제가 갚아야 하느니라. 만일 열마 늙은이의 심문을 받지 않으려거든 모름지기 바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리라.

## “일념화두, 망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라”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十年端坐擁心性(십년단좌옹심성)  
寬得深林鳥不驚(관득심림조불경)  
昨夜松潭雨惡(작야송담풍우악)  
魚生一角鶴三聲(어생일각학삼성)

십년동안 오롯하게 마음하나 끼고 앉았더니 녀석해져 숲속의 새들도 놀라지 않는구나. 지난 밤 송담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는데 고기들은 한쪽 모퉁이에 우글거리고 학은 두세 번 우는구나.

깊어진 수행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는 지 선사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밝혀서 깨달음의 환희에 젖어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안주한다면 참되다 할 수 없습니다. 큰 깨달음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자비심을 일으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보살님과 역대조사님은 일체중생을 제도하기위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무연대자(無緣大慈)라는 말이 결코 수고로움을 더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명업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에 해매고 있는 중생을 향한 연민심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 선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숲속에서 마음 하나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잊고 앉아 있다 보니 새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머리 위에 앉았다가 어깨에도 앉았다가 날아갑니다. 산 짐승들도 머리로 툭 치고 가기도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분별심이 있다면 그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정(定)에 들었는데 비바람이 폭시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소나무 위에 잡자는 학들은 괜찮은지, 연못의 고기들은 괜찮은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선정 속에서도 염려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定)에 들었는데 비바람이 폭시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소나무 위에 잡자는 학들은 괜찮은지, 연못의 고기들은 괜찮은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선정 속에서도 염려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에서 일어나 연못가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은 한쪽 모퉁이에 바글바글 웅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님 저할들 어떻게 지난 밤 동안 무사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개울 건너 소나무 위 학들이 두세 번 소리 내 우는데 ‘저희들도 무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이처럼 미물에게까지 자비심이 일어나는 자기 성찰이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철저히 하고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지혜와 얇은 자비심으로 만족하거나 자신을 속



여서도 안 됩니다.

이 집안에서는 부처의 길로 통하는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각자의 대신심과 대본심과 대용맹심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결하는 모든 망상을 내려놓고 용맹하게 그 문으로 들어갔다가 무량중생을 제도하기위해 호방하게 다시 그 문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념화두의 칼날이 어떤 망상의 사슬에도 무디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法海行一珠(법해행일주)  
無色亦無相(무색역무상)  
日用而無盡(일용이무진)  
長夜常自光(장야상자광)

불법의 바다에 굴러다니는 한 개의 구슬이여!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구나. 날마다 쓰고 또 써도 다함이 없는데 기나긴 밤에는 항상 저절로 빛나네.

## “무명과 애욕은 본래 공하다”

###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粉骨碎身破無明(분골쇄신파무명)  
翻天覆地入空界(번천복지입공계)  
懸崖撒撇進一步(현애철수진일보)  
金烏夜半徹天飛(금오반철천비)

분골쇄신 정진하여 무명을 타파하니 천지를 뒤엎고서 공한경계 들어가네. 비랑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니 밝은 해가 한밤중에 하늘 위로 오르도다.

煩惱纏中(번뇌광중)에 含藏眞實(함장진보)를 大衆(대중)은 還可採得摩(환가채득마)야 若是得者(약시료득자)인댄 且道一旬來(차도일구래)하라. 如何即時(여하즉시)오 良久(양구)에 ‘-嘿(일할)云(운) 面南看北斗(면남간북두)하니 閃光(섬광)이 照十方(조십방)이로다.

번뇌광중에 참다운 보배 함장한 것을 만약 알아 얻은 자일진댄 한마디 일러보라.

어떤 것이 곧 옳은고? 잠깐 있다가 ‘할’을 한 번하고 이르시되 얼굴을 남쪽으로 하여 북두칠성을 보니 번쩍이는 광명이 시방을 비추도다.

是會大衆(시회대중)은 諸聽(제청)하라. 天下叢林(천하총림)이 須是大治寮(수시대치료)니 將來鑛石(장래광석)하여 百千鍛鍊(백천단련)하고 分類銅鐵(분류동철)이어든 捻出眞金(염출진금)하여 提示目前(제시목전)하야사 始得(시득)다. 若也不實(약야부실)인댄 黑山下鬼窟活計(흑산하귀굴활계)니 雖坐彌勒下生時(수좌미륵하생시)인들 有何奇特(유하기특)이리요 一念卽下契悟(일념즉하계오)하야사 卽是事凡夫(즉시료사범부)니라.

시회대중은 자세히 들어라. 천하총림이 큰대장간이니 광석을 백천 번 단련하여 구리와 쇠를 분류하거든 진금을 가려내어 눈앞에 보여야사 비로소 옳다.



만약 또한 진실하지 못할진댄 검은산속 귀신굴의 생활이니 비록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살아 있을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한쌍자 죽하에 깨달아야사 곧이 일 마친 대장부이니라.

華凡成聖珍貴社(화범성성진귀사)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  
全致眞金無鑛石(전치진금무광석)  
無明愛河本來空(무명애호본래공)

범부 고쳐 성인됨이 가장 귀한 일이니 잠깐의 시간도 소홀히 하지 말라. 온전히 진금 되면 광석은 없어지니 무명과 애욕은 본래 공했다.

## “마음 단속 잘해야 동요하지 않는다”

###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

세월의 흐름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금년에도 동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 되어서 능히 온갖 묘함을 갖추고[常爲諸佛之師能含衆妙]. 언제나 현인들의 어머니가 되니 가히 유현하다고 할 만합니다[恒作賢之母可謂幽玄].

이러하니 이 마음이야말로 깊고 깊어서 도저히 알기 어려운 그야말로 현묘(玄妙)하고, 현미(玄微)해서 심원(深遠)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심원한 불교의 우주관적 마음세계는 과학적 관점에서 소립자 물리학자들의 견해인 “모든 입자는 서로 다른 입자를 만드는 데 도와주는 소위 ‘자체조화(自體調和)’ 속에서 일종의 우주 그물을 짜고 있다”는 구두끈 이론에서 그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화엄경>에 나오는 인드라 하늘에 있는 진주 그물의 비유는 소립

자 물리학이 나오기 2,500여 년 전에 인간의 마음을 탐구함으로써 창조되어진 최초의 끈 이론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과학과 불교는 전혀 차이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론의 유사한 사유방법으로 인하여 불교의 위대한 사상체계가 현대과학의 인식체계를 통하여 여실하게 예증(例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신앙체계는 용심(用心)을 통해 안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마음수행을 요구하고 있기에 불자라면 누구나 수행자다운 고고한 인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업연에 의한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기본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인고의 노력 또한 절실한 기술어야 합니다.

특히 깨침을 향한 수행자라면 할절신체(制節身體)의 고통도 인욕바라밀로 견디신 석존의 수행이력을 깊이 되새겨 수행정진에 한시도 소홀히 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안거에 들어가는 수행납자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대상을 찾고, 그 마음을 잘 단속하여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의 통로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로가 일지 않는다면 마구니들이 감히 그 마음을 훔치려고 달려들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唯心淨土 別無地(유심정토 별무지)  
自性彌陀 何異形(자성미타 하이형)  
衆生迷此 在塵中(중생미차 재진중)  
是故能仁 開淨土(시고능인 개정토)  
오직 마음의 정토만 있을 뿐 따로 부처님 세상은 없고, 자성미타가 어찌 다른 모습이었는가. 중생이 미혹하여 티끌세상에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석존께서는 정토를 여셨도다.